

# 논술시험 문제지

인문계열 3회차

2012년 11월 18일 (제 3회차)

모집단위		수험번호		성명	
------	--	------	--	----	--

감독 확인	
----------	--

◆ 유의사항 ◆

1. 시험시간은 120분입니다.
2. 필기구는 배부한 검정색 볼펜이나 개인 연필 가운데 한가지 필기구로만 계속 사용합니다.  
(수정액, 수정테이프, 색갈펜은 사용을 금지합니다)
3. 답안에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표현이나 표시를 하는 경우 '0'점 처리됩니다.
4. 수정할 사항은 원고지 사용법에 따라 수정합니다.
5. 문제는 총 2문제이고, 답안지는 총 2장입니다.
6. 각 문제별로 지정된 답안지의 정해진 위치에 답안을 작성합니다.
7. 연습용지는 문제지 제일 뒷장의 여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8. 감독위원이 시험시작을 알리기 전까지는 문제를 볼 수 없습니다.
9. 시험 시작 후 문제지의 문항수를 확인합니다.
10. 시험 종료 후 문제지와 답안지 모두 감독위원에게 제출합니다.



## 공 통 문 항

<가> 지금 종각(鐘閣)이 있는 종로 네거리에 점포가 늘어선 시장은 1리가 채 안 된다. 중국에서 내가 거쳐 간 시골 마을들의 점포는 대부분 몇 리를 뒤덮었고, 게다가 거기서 사고파는 물건의 번성함과 다양함이 모두 우리나라 전국에서 유통되는 물건을 합쳐도 미치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가운데 한 점포가 우리나라보다 더 부유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재물이 유통되지 않아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 시장이 번성한 것을 보고서는 대뜸 “오로지 말단의 이익만을 숭상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현재 국사를 논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치가 날로 심해진다고 말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다.

다른 나라는 정말 사치로 인해 망한다고 해야겠지만 우리나라는 반드시 검소함으로 인해 쇠퇴하게 될 것이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벼들이 사라지고 작업 기술이 피폐해졌다. 노래하고 악기 연주하는 것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에 음악이 화음을 이루지 못한다. 부서져 물이 새는 배를 타고, 목욕을 시키지 않은 말을 타며, 이지러진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진흙을 바른 방에 그대로 살기 때문에 공장(工匠)과 목축과 도공의 기술이 끊어졌다. 더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 할 것 없이 다 곤궁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방도가 없다. 우리의 풍속이 검소함을 좋아하여 이렇게 된 것이겠는가? 재물을 사용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경제를 윤택하게 하는 도리를 갖춰 10년 동안 행한다면 온 나라의 세금을 감면할 수 있을 것이고, 만조백관의 녹봉을 증액할 수 있을 것이며, 사농공상 모두 서로를 구제할 것이다. 또 초가집과 거적때기를 친 대문이 붉은 다락을 갖춘 화려한 문으로 바뀔 것이고, 도보로 걷고 물 건너기를 걱정하던 자들이 가볍고 튼튼한 말이 끄는 수레를 탈 수 있을 것이다.

<나> 토지는 인류의 노동에 의해 그 자연적인 비옥함이 배가(倍加)되었고, 훨씬 더 많은 인구를 먹여 살리게끔 되었다. 거만하고 냉혹한 지주는 자신의 넓은 들판을 바라보면서 그의 소작민들의 궁핍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거기서 재배된 수확물 전부를 자기 혼자 소비하겠다고 상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눈은 배보다 크다(The eye is larger than the belly)’라는 통속적인 속담이 이 지주에 대해서보다 더 적합한 경우는 없다. 그의 위장(胃腸)은 자기의 거대한 욕망을 채울 수 있을 만큼 크지 않고, 단지 가장 비천한 농민이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위장의 용량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 잉여 부분을 그는 가장 능숙한 방법으로 자신들이 사용할 양식을 마련하는 농민들에게, 양식이 소비되는 장소인 자신의 저택 안에 살고 있는 하인들에게, 상류 사람들이 사용할 모든 다양한 자질구래한 물건들을 공급하고 정돈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수 없다. 하층민들은 자신들의 생활필수품 몫을 이렇게 지주의 사치 욕구로부터 얻게 되는데, 만약 이들이 그것을 지주의 인간애나 정의감에서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면 이는 그릇된 생각이다.

토지의 생산물은 언제나 그것이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주민을 유지할 뿐이다. 부자는 단지 생산물의 집적 중에서 가장 값나가고 좋은 것을 선택할 뿐이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 별로 많이 소비하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들은 천성이 된 이기심과 탐욕에도 불구하고, 비록 그들이 자신만의 편의(便宜)를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또한 그들이 수천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서 추구하는 유일한 목적이 그들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될 수 없는 욕망의 충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만들어낸 개량의 성과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가진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숨은 힘에 이끌려서, 토지가 모든 주민들에게 똑같이 나누어졌을 경우에 있을 수 있는 것과 같은 생활필수품의 분배를 하게 된다. 그러한 결과를 의식하지 않은 채 그들은 부지불식간에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인류 번식의 수단을 제공하게 된다.

욕망의 추구가 불러일으키는 개선에 대한 존중은 종종 공공의 복지를 촉진하는 제도를 발전시킨다. 한 애국자가 공공행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의 행위가 개선의 이익을 누리게 될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순수한 동감(同感)에서 생긴다고 할 수는 없다. 공공정신을 지닌 사람이 도로 보수를 장려하는 이

유가 무거운 짐을 둘러멘 짐꾼이나 가난한 마차꾼들에 대한 배려 때문인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포나 양모 제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 정책을 수립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이 품질 좋은 옷을 값싸게 입을 수 있게 하려는 동감에서 유발되지 않고, 또한 제조업자나 상인에 대한 동감에서 유발되지도 않는다. 국가는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다. 그 애국자는 국가라는 거대한 제도가 작동하는 데 조금이라도 혼란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할 뿐이다.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나 환락에 대한 직접적인 감각 또는 감정에 대한 고려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떤 아름답고 질서정연한 제도의 완성과 개량이라는 관점에서 국민의 행복을 촉진하고자 갈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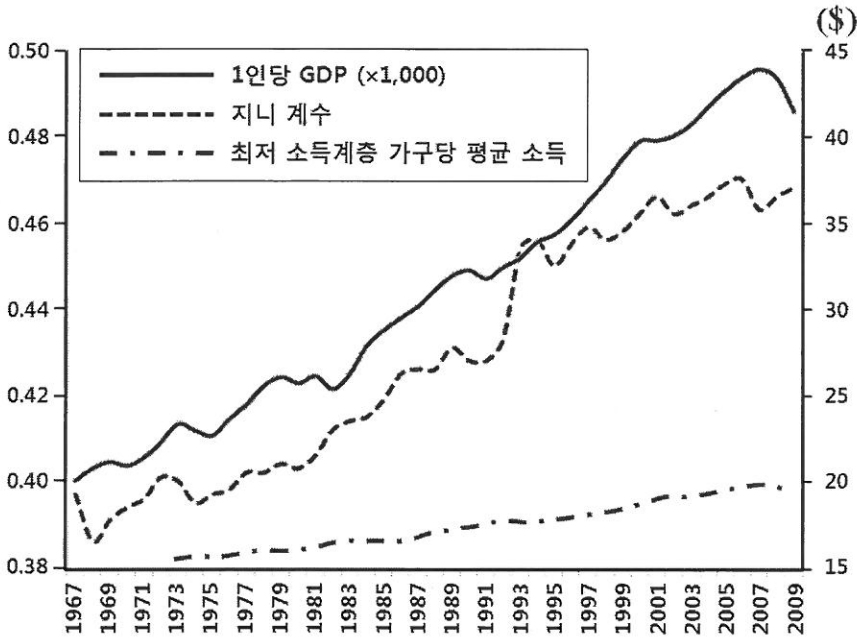
<다> 공화주의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의 평등을 강조한다. 공화주의에서 법치를 강조하는 까닭은 시민이 특정한 인물이나 권력의 자의에 예종되지 않고 오직 주권자인 시민 스스로 만든 법에 복종할 때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공화주의적 평등은 시민의 정치적 권리상의 평등이 달성될 수 있는, 곧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여 존엄과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사회적·경제적 조건들을 보장하는 데 주목한다. 그 첫 번째는 마키아벨리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어느 시민도 가난을 이유로 공적인 명예 추구 과정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루소에 의해 정립되었는데,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버려야 할 정도로 가난해서는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사적인 혜택들을 미끼로 다른 시민들의 굴종을 사버릴 수 있을 정도로 부유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우리 시대에 공화주의적 평등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첫 번째 원칙은 시민들이 너무 가난해서 공공 부문이나 사기업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게 되거나 교육의 기회조차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막을 것을 요구한다. 공화국은 시민들이 가난 때문에 배제된다는 수치스런 경험을 겪도록 내버려둘 수 없으며, 또한 공화국은 명예로운 공직에 대한 경쟁에서 가장 부유한 자나 가장 큰 특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우수한 자가 승리하도록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가장 우수한 자의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절대적으로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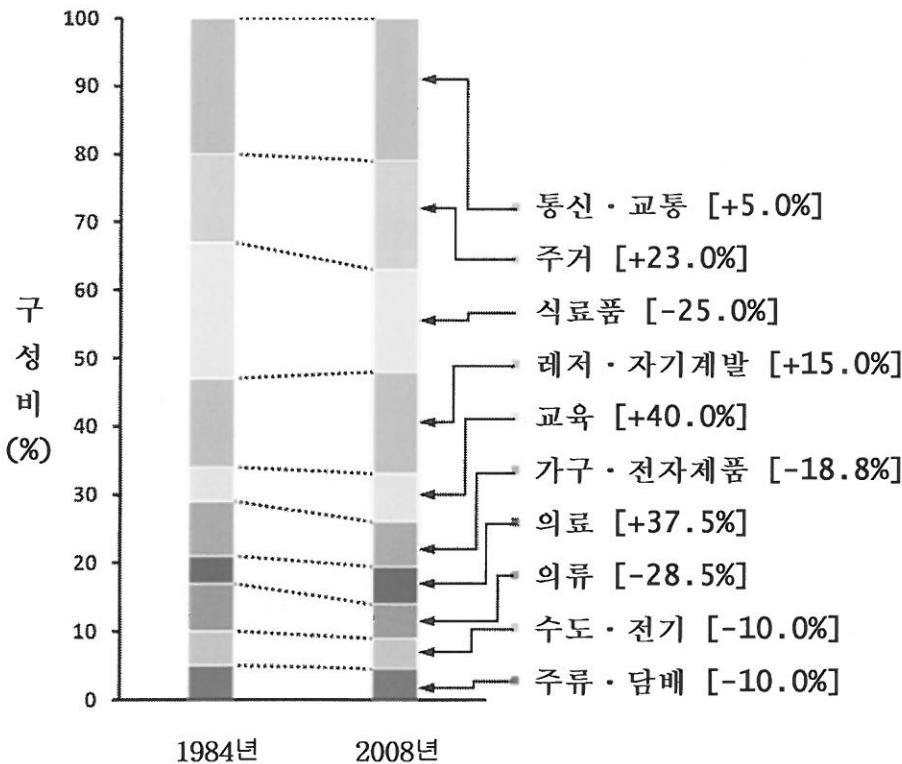
루소가 제시한 두 번째 원칙은 공화국이 모든 사람들에게 불운이 찾아왔을 때도 밑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일할 권리와 기타 사회적 권리들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권리들을 복지국가적 접근과 같은 것으로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복지국가 정책들은 평생토록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위험이 있고, 개인들이 자력으로 일어서는 것을 돕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 권리들을 공적 구호(救護) 또는 더 나쁜 형태인 사적 자선과 혼동하지 말아야 하는데, 구호나 자선을 타인을 돕는 자의 선의에 의존하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공적 구호 또는 사적 자선은 아무리 칭찬할 만한 경우라 하더라도 시민적 삶과는 양립할 수 없는데,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존엄성에 상처를 주기 때문이다. 시민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로서 구호를 제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화국은 사회적 약자가 도움을 받을 때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한 그 의무를 다른 사적 개인들에게 떠넘겨서도 안 된다.

1. <가>, <나>의 공통 주장과 <다>의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논리적 조건을 제시하고, <그림 1>과 <그림 2>의 상황이 전개된 A국에서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시오. (1,000±100자)

<그림 1> A국의 1인당 GDP, 지니 계수, 최저 소득계층 소득 변화추이



<그림 2> A국 중간계층의 가구 소비 구성비



※ 우측의 수치는 항목별 구성 비율의 증감률임.

## 계 열 문 항

<가> 현대 예술과 관련된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무엇이 어떻게 하여 예술이 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을 예술철학자 조지 디키는 ‘예술제도론’으로 설명한다. 그는 “예술작품이란 그것들이 제도적 틀이나 맥락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결과로 예술이 된다”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예술로 불리는 사물과 그렇지 않은 사물을 구분하는 일에는 어떤 정해진 개념상의 공식이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역동적 사회제도, 즉 ‘예술계’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제도로서의 예술계는 이미 대략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사회적 실천, 그리고 느슨하게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 즉 예술가, 기자, 비평가, 예술사가, 예술철학자 등으로 구성된다. 디키의 견해에 따르면 하나의 사물이 예술작품이냐 아니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하는 지점은, 예술을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사회제도의 변화하는 맥락 속에서 사회적 실천과 결정들이 행하는 기능이다. 예술가란 자신이 무엇을 하는가를 이해하면서 예술작품을 만드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예술작품은 예술계의 대중에게 전시되기 위해서 창조된 일종의 인공물이다. 예술계의 대중이란 전시된 대상물을 어느 정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의 집합이다. 예술계란 예술과 관련된 모든 체계의 총합이다. 그리고 예술은 바로 예술계가 예술로 여기는 것이다.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도 유사한 관점에서 예술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다. 예술을 사회적 구성물로 이해하면서, 베커는 예술이라는 구성물은 다양한 행위자들을 (그 사회의 힘이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을 허용한 행위자들을 포함하여) 포괄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예술가의 고유성과 천재성에 대한 생각에 의문을 던지는 것이다. 예술작품 그 자체보다는 이러한 사회적 과정들과 문화적 의미들이 주된 관심이 된다. 그는 사회과학은 어떠한 발견이라도 일시적인 것이며 전복될 수 있다는 과학적 기초에 의존하고 있지만, 미학적 전통은 명백한 신비적인 전제들에 근거하여 지적 관념을 발전시켜 왔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런 전제들은 그들의 규율 전통에서 너무나 중심적으로 자리 잡아 왔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 되어 버렸다. 예컨대 예술 시장과 유통 같은 개념이 그들의 미학적 정의 속으로 침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학자들은 이러한 관념이 미학자들의 심중에 존재하는 것이지 예술작품 자체에 들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나> 어떤 살인자가 있다고 하자. 그의 행동은 법적 도덕적으로 비난받지만 동시에 그것은 취미 판단의 대상이다. 영화나 소설에서는 종종 범죠편자나 깡패가 주인공으로 나온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혐오하면서도 영화나 소설에서는 그들을 지지하고 자기 동일화하기도 한다. 이것은 미적 판단이다. 그 근거를 칸트는 무관심에서 찾았다. 그것은 도덕적 지적 관심을 배제하는, 다시 말하면 괄호에 넣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러한 영화나 소설을 즐기는 것은 사실 문화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다.

칸트의 미적 판단은 관심을 배제하는 것에 있다. 칸트가 미적 경험이 무관심적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경험의 대상이 대상 그 자체가 아니라 쾌를 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대상의 실제 존재와는 상관없다는 의미이다. 미적 태도(쾌(快)인가, 불쾌(不快)인가)가 도덕적 태도(선(善)인가, 악(惡)인가)와 다른 점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사물이 예술인가 아닌가는 그것에 대한 관심을 배제함으로써만 결정된다. 그것이 자연물이든 기계적 복제품이든 아니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물건이든 상관없다. 그것에 대한 통상의 관심을 별도로 떼어놓고 본다는 것, 그러한 ‘태도 변경’이 어떤 사물을 예술이게 하는 것이다.

미적 판단에서는 사물이 허구라든가 악이라든가 하는 면은 배제한다. 그런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은 아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배제할 것을 ‘명령받는’ 것이다. 즉 사람은 그것에 익숙해지면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마치 과학적 대상, 미적 대상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술의 향유는 예술작품에 대한 지속적 경험에 의해 학습되는 것이다.

<다> 러시아 형식주의자 슈클롭스키는 예술작품은 지각작용이 습관화되고 자동화되는 것에서 탈피하려는 ‘지각의 탈자동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는 것이라 말한다. 그에 의하면 예술이란 사물을 알려진 대로가 아니라 그것이 인식되는 대로 사물에 대한 감각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예술의 기법은 대상을 낯설게 만들고, 형식을 어렵게 만들며, 감각작용을 난해하게 만들고, 그것을 길게 연장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감각작용의 과정은 그 자체가 하나의 심미적 목적이며 따라서 그것은 길게 지연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술은 대상의 기교성을 경험하는 한 방법이다.

예술의 특성을 대상에 대한 ‘지각의 자동화’로부터 해방되는 것에 있다고 보는 슈클롭스키는 예술에서는 지각의 과정이 오래도록 연장되는 것이 심미적 목적이므로 ‘예술은 사물이 가공되는 것을 체험하는 방법이며, 이미 완성된 것은 예술에서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슈클롭스키에 따르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사물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대응할 뿐이다. 그러므로 예술은 이러한 대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느끼는 그런 방법으로 담아내야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낯설게 하기’ 기법은 대상을 이상하고 기묘한 것으로 왜곡시켜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게 하고 지각의 시간을 연장시키지만, 바로 이러한 지각의 과정을 통해서 대상을 새롭게 환기시키는 것이 미학의 목적이다.

2. <가>, <나>, <다>에 나타난 예술의 본질에 대한 견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활용하여 <보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존 케이지와 앤디 워홀의 작품이 ‘왜 예술인가’에 대하여 논하시오. (1,000±100자)

<보기>

현대 작곡가 존 케이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는 1952년 뉴욕주 우드스탁에서 초연된 <4분 33초>이다. 작품의 연주를 위하여 피아니스트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가 피아노 앞에 앉는다. 그리고 건반 뚜껑을 열고서 정확히 4분 33초 동안 가만히 앉아 있다. 그러고 나서 다시 피아노 뚜껑을 닫고 일어나 조용히 무대에서 걸어 나온다.

1964년 앤디 워홀과 그의 조수들은 브릴로라는 비누 회사에서 사용하던 포장용 상자들을 거의 똑같이 묘사한 작품들을 만들어 뉴욕 스테이블 갤러리에 전시했다. 워홀이 만든 상자는 슈퍼마켓 선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들이었다.

오늘날 존 케이지와 앤디 워홀은 20세기 네오 아방가르드의 가장 대표적인 예술가로 평가되고 있다.

연 습 지